

# 여성문학과 술/담배의 기호론

임정연\*

## 〈차례〉

1. 들어가며
2. ‘위험한’ 여성들, 신성한 가정의 이중 타자
  - 2.1. 키친 드링커, 정숙 윤리의 결핍 혹은 과잉
  - 2.2. 탈성화(脫性化)된 주체의 생존 윤리
3. ‘동원된’ 여성들, 젠더표지의 은닉과 재건
4. 나가며

## 〈국문초록〉

여성문학에서 여성 금기와 억압의 상징인 술/담배는 남성 권력에 저항하고 공모하는 여성의 정치적 무의식과 성별화된 윤리기제를 읽어낼 수 있는 상징 체계를 구현한다.

중산층 가부장 가정의 지표인 ‘주부’의 음주, 즉 ‘키친 드링커(kitchen drinker)’의 존재는 신성한 가정 내부의 위기와 균열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정숙 윤리에 긴박되어 욕망을 은폐하며 살아가는 분열된 주체로서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결핍이자 과잉을 의미하는 ‘위험한’ 기호이다. 공선옥 소설에서 음주와 흡연은 하층민 여성이 탈성화(desexualization)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를 보존하는 생존과 윤리의 기체이다. ‘신성한 모성’과 ‘정숙한 주부’로 환원되지 않는 이 여성들은 가부장 기획의 실패와 균열을 증거하는 불온

\* 이화여자대학교

한 기표이다.

공지영, 권여선 소설에서 술/담배는 혁명의 주체로서 열등한 젠더표지를 은닉하고 남성성을 전유하고자 했던 지식인 여성의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하는 클리셰(cliches)로 기능한다. 여기서 여성은 술/담배를 남성 가부장 권력에 대항하는 대타적(對他的) 도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개인의 자율적 형식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술/담배에는 젠더표지를 은닉하고 복원하고 재건해가는 여성 성장의 역사가 기재되어 있다.

핵심어: 술, 담배, 젠더표지, 신성한 가정, 키친 드링커, 정숙 윤리, 탈성화, 생존 윤리, 정치적 무의식, 아비투스, 성장

## 1. 들어가며

문학이 술/담배와 긴밀한 동맹을 맺게 된 것은 이들이 예술적 영감과 창조의 원천으로 이해되어 왔던 데서 비롯된다. 시인이 “술은 우리의 정신의/화려한 형용사”<sup>1)</sup>라고 예찬하고 “나와 시와 담배는 異音 同曲의 三位一體”<sup>2)</sup>라 고백할 때, 술과 담배는 육체의 고통을 쾌락으로 인도하는 축제의 제구(祭具)이며 시인의 영혼을 담아내는 노래가 된다. 그렇게 문학은 술과 담배가 선사하는 강렬한 매혹과 신비로운 쾌락에 기대어 일상에 결박된 감정을 풀어내어 숭고한 미의식에 이르고자 했다.<sup>3)</sup> 그리하여 술과 담배는 “예술가들의 몽상과 감각적 쾌락을 위한 수단”<sup>4)</sup>으로 문학적

1) 정현중, 『고통의 축제 2』, 『나는 별아저씨』, 문학과 지성사, 1994, 17쪽.

2) 오상순, 『나와 시와 담배』, 『방랑의 마음』, 문화공론사, 1977, 92쪽.

3) 담배는 근대적 합리성이나 과학기술의 논리와는 대치되는 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때 담배의 미적 쾌락은 바로 담배의 무의성, 즉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Richard Klein, 『담배는 숭고하다』, 허창수 역, 문학세계사, 1995, 소래섭, 『1920~30년대의 문학과 담배』, 『한국현대문학연구』 32, 2010, 317쪽에서 재인용.

상상력을 확장시키면서 문학 안에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메타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학과 술/담배의 이 같은 동맹관계는 철저히 남성 문화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랜 문화적 관습 가운데 술과 담배는 남성들의 독점적인 사유물로서 남성들의 사회적 결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토템’으로 기능하였고,<sup>5)</sup> 이에 따라 여성들에게는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술/담배가 여성의 타락과 과멸을 암시하는 전주곡이자 가장 보편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문학적 용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상 술과 담배가 여성 금기의 상징이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술은 고래로 조상을 모시는 제사나 잔치의 의식으로, 담배는 17세기 이래 여성을 포함해 조선인의 보편적인 기호품으로 전통 속에 존재해왔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나 근대 국가주의 이념은 여성과 여성의 몸을 관리하고 동원해야 할 필요에 따라 여성의 음주와 흡연을 이념적으로 규제하였다. 즉 ‘현모양처’라는 민족의 여성상이 공표되고 여성의 몸이 알코올과 니코틴에 취약하다는 의학적 사실이 진리로 유포되면서 여성은 술과 담배라는 기호품을 향유할 권리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과 근대지식이 공모해 특정재화에 문화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한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성을 만들어낸 경우라 할 수 있다.<sup>7)</sup>

뿐만 아니라 이후 여성의 교양담론들은 자발적으로 여성의 음주와 흡연을 부정적인 풍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 “스스로 자기

4) 소래섭, 앞의 글, 340쪽.

5) 윤명희, 『알코올 연출의 한국사회』, 박재환 외, 『술의 사회학』, 한울, 1999, 79-80쪽.

6) 실제로 전통사회의 흡연 실태를 전하는 문헌들은 전통사회에서 술과 담배가 여성에게 동등하게 허용되어 왔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담배 구하기가 힘쓴다”는 하멜의 기록(남인숙, 『여성흡연에 대한 성차별적 사회담론』, 『사회이론』, 23, 2003, 144쪽에서 재인용) 역시 이 장면을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다.

7) 남인숙, 앞의 글, 149쪽.

몸과 마음을 지<sup>8)</sup>키는 ‘교양’ 있는 여성이 되기를 독려해왔다. 이 같은 여성 교양담론에는 기타 열등한 여성 집단과 구별되는 우월한 주체, ‘스위트 홈’의 이상적 주부로 자신을 표상하고자 했던 중산층 지식인 여성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술/담배의 금기가 남녀의 성적 차별과 위계뿐만 아니라 여성 내부의 차이와 서열을 형성시키는 데도 관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술/담배에 대한 여성 금기의 역사에는 여성이라는 젠더에 적대적인 남성권력이 여성성을 포섭하고 배제해온 기록이 압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술/담배에 대한 여성의 시각과 태도에는 오랜 세월 금기에 도전하고 금기와 충돌하고 금기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성들의 상처와 흠집이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남성작가들이 술과 담배라는 기호를 통해 청춘과 낭만을 장식하고, 이에 대한 세련된 안목과 취향, 교양을 과시하는 동안<sup>9)</sup>, 여성작가들은 이것이 어떻게 여성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남성문화의 상징적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재현하고자 했다. 이런 까닭에 여성문학에서 여성의 음주와 흡연은 공히 고정된 젠더 정체성과 성역할을 거부하려는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나아가 남성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포즈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다시 말해 여성소설에서 술/담배는 남성 권력에 저항하고 공모하는 여성의 정치적 무의식과 성별화된 윤리기제를 읽어낼 수 있는 상징체계를 구현한다.

이에 이 논문은 술/담배가 여성의 자의식과 관련해 핵심 모티프로 드

8) 백혜주, 『여성과 술담배』, 『새가정』, Vol.2 No.5, 1955, 37쪽.

9) 특히 남성작가들은 술을 도(道)와 미(美)의 경지에서 향유할 뿐만 아니라 지(知)의 영역에서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조지훈이 수필 『술은 인정이라』에서 펼친 ‘주도유단론(酒道有段論)’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설 전체가 술에 대한 보고서이자 미학적 탐구서라 할 만한 박상우의 『술병에 별이 떨어진다』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10) 17세기~19세기 서양에서도 흡연 여성은 풍자의 대상이었지만, 19세기에 이르러 흡연은 여성 해방 운동을 위한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때 유행했던 ‘파란 스타킹(bluestocking)’이란 용어는 전통적 여성상을 거부하고 정신적인 노동을 추구하는, 실제로 유식하거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말이다. 볼프강 쉬벨부쉬, 『기호품의 역사』, 이병린·한운석 역, 한마당, 2000, 138쪽.

러나거나 젠더 측면에서 의미있는 지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후 여성소설을 대상으로 술/담배가 여성이라는 젠더 범주를 축소하고 확장하는 데 어떻게 관여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1)</sup> 술/담배의 상징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여성이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금기에 도전하며 어떻게 자아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젠더성을 어떻게 은폐하고 성찰하고 재건해왔는지, 그 경로를 탐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2. ‘위험한’ 여성들, 신성한 가정의 이중 타자

### 2.1. 키친 드링커, 정숙 윤리의 결핍 혹은 과잉

여성문학에서 술과 담배는 가부장 체제에서 타자화된 중산층 여성의 분열의 경험과 고독한 내면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특히 “가치관의 진공상태 속을 방향 없이 떠도는 고독한 단자로서”<sup>12)</sup> 여성의 실존을 문제삼았던 1990년대 여성소설에서 술과 담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성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소도구로 등장한다.

무엇보다 이들 음주/흡연 여성은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주부’, 소위 ‘키친 드링커(kitchen drinker)’<sup>13)</sup>라는 점에서 ‘신성한 가정’ 내부의 위기와 균열의 증거가 된

11) 여기서 술/담배는 상호 환원되는 기표이다. 물론 문학에서 술과 담배의 상징성이 같을 수 없고 여성소설에서 담배는 술보다 조금 더 ‘레디컬(radical)’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나, 여성을 억압하는 금기의 기제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술/담배의 미세한 차이는 괄호 치고 이들을 같은 맥락에 놓고 접근하고자 한다.

12)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5, 가을, 23-24쪽.

13) ‘키친 드링커’는 가족이 없는 시간에 부엌, 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주부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들이 음주와 흡연을 항상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키친 드링커를 공개적이지 않은 형태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가정주부를 일

다.<sup>14)</sup> 즉 이 시기 소설에서 여성의 음주와 흡연은 자아가 삭제된 채 ‘주부’의 정체성으로 살아온 여성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 권태와 비애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혜경의 『그 집 앞』은 주부의 술 마시기가 ‘정숙’과 ‘품위’를 강요하는 중산층 이데올로기<sup>15)</sup>에 대한 여성들의 극심한 피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해준다.

머리카락 한 오라기 흩어지지 않은 단정한 차림새로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면, 나는 시어머니가 차에 올랐을 만한 시간을 사이에 두고 냉장고를 뒤진다. 어떤 날엔 와인인, 어떤 날엔 맥주가, 그것도 없으면 생선 요리에 쓰고 남은, 싱크대 안의 청주까지. 첫 잔은 시어머니의 부재로 트인 숨통을 위한 잔이었다. 시어머니가 있는 동안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울울이 당겨지고 짓눌리던 신경이 늦춰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양의 알코올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당겼던 신경줄이 느슨해지면서 출렁이다 보면 부표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키친 드링크. 드링크라는 단어는 꼭, 구석방에 숨겨둔, 온갖 종류의 술이 가득 든 트렁커를, 그 트렁크를 열며 여자가 짓는 음습한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여자. 그 취기로 일상을 건디는 여자. 그게 나라니.<sup>16)</sup>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시어머니는 그 자신 소설의 소생이면서도 늘상 같은 처지의 여성화자를 고위공직자 자녀인 막내동서와 비교하면서 깎아내

키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4) 1950년대 이후 가정을 미국식 모델로 재편하면서 여성에 대한 현모양처 이념은 ‘주부’의 상으로 수렴되었다. 따라서 주부는 서구식 스위트 홈인 서구 부르주아 핵가족을 규범으로 하는 ‘신성한 가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와 제도로서의 주부』, 『여원』연구, 국학자료원, 2008, 59-66쪽.

15) ‘정숙’은 보수와 안정을 추구하는 근대 가부장제도가 내세운 대표적인 여성윤리이다.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가정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순결한 아내, 정숙한 어머니를 요구했다.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358쪽.

16) 이혜경, 『그 집 앞』, 『그 집 앞』, 민음사, 1998, 55쪽.

린다. 이때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시어머니는 ‘신성한 가정’의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가부장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무미건조한 결혼생활과 소통이 부재한 남편의 존재는 여성 화자의 소외감과 열패감을 가중시킨다. 이럴 때 여성화자의 음주는 일차적으로 “울음이 당겨지고 짓눌리던” 신경줄을 잠시 느슨하게 해 스스로 “일상을 견디”기 위한 방편이다. 나아가 이 행위는 시어머니가 유지하는 단정하고 반듯한 삶에 대한 염증과 파괴욕구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별히 여성화자의 음주가 가부장 질서에 대한 저항감에서 비롯된다는 증거는 “머리카락 한 오라기 흩어지지 않은 단정한 차림새”의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혼자’ ‘주방’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서 주부의 음주가 행해지는 ‘주방’은 더 이상 중산층 가정의 행복의 표상이 아니라, 가부장 질서가 포섭하지 못하는 잉여의 공간일 뿐이다.

이 같은 잉여의 시간과 공간은 여성으로 하여금 일탈의 꿈을 꾸게 하고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이 시간동안 여성들은 누군가의 ‘여편네’가 아닌, 외로울지언정 ‘여자’로 살고 싶은 욕망과 마주치기도 한다.

소주를 한 잔 따랐다. 첫모금을 혀에 대니 좀 세다. 가슴이 지르르하다. 하지만 밥이나 빵이나 과일이 아닌, 술을 마신다는 것이 즐겁다. 이것도 손쉬운 방법이나마 일상의 탈피니까. 머릿속에서 그이의 생각도 차츰 아련해진다. 술이 나더러 여편네 아니라고 한다. 대신 혼자 술 마시는 외로운 여자 하라고 한다.<sup>17)</sup>

그것은 술이 “밥이나 빵이나 과일”과 같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타오르게 하는 축제와 도취의 음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sup>18)</sup> 은희경의 『빈처』에서 아내의 음주가 남편에게 위협하고 불길한 이

17) 은희경, 『빈처』, 『타인에게 말걸기』, 문학동네, 1996, 176-178쪽.

18) 술은 일상의 긴장과 분열의 극복, 일탈과 해방이라는 축제의 도구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슐라르는 술이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타는 물’이라고 명명하기도 했

유도 술이 아내의 욕망과 무의식을 일깨워준다는 점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연애시절 술을 마실 줄 몰랐던 아내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느꼈던 당혹스러움과 불쾌감은 자신이 모르던 아내의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자신이 통제하는 질서 밖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주부의 음주가 남성들에게 ‘위험한’ 이유는 가부장 질서가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무의식에 대한 남편들의 두려움은 여성 흡연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혐오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담배가 여성의 무의식에 저장된 상처와 결핍, 자아와 욕망의 존재를 환기시킴으로써 남성의 무력함을 자극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9)</sup> 그래서 여성소설에서 담배는 감추어진 남성의 무기력과 불안 심리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모티프가 된다.

김형경의 『담배 피우는 여자』는 이처럼 성 이데올로기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담배의 상징성이 잘 구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담배의 속성을 통해 여성의 자의식을 역설할 뿐 아니라, 담배를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 간에 형성되는 역학관계를 효과적으로 탐색해간다. 소설의 여성화자는 행복한 주부의 모델 같던 옆집 여자가 ‘베란다’<sup>20)</sup>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호기심을 갖는다. 그리고 “여자들의 흡연에 대해 병적으로 혐오하는”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옆집 여자에 대해 의구심과 동정심을 품는다. 그

다. 가스통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김병욱 역, 이학사, 2007. 155-177쪽.

19) 정신분석학에서는 담배의 원형을 남근으로 보고 있다. 프로이트는 여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빈 구강과 이를 꽂 메운 담배를 볼 때 남성은 여성의 성기를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의 거세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필립 그랭베르, 『프로이트와 담배』, 김용기 역, 뿌리와 이파리, 2003, 18-19쪽.

20) 여성 흡연에 대한 남성들의 근거 없는 혐오는 여성들의 흡연 공간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여성의 담배 피우기 도전사는 결국 공간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흡연 공간 ‘베란다’나 ‘거실 한 귀퉁이’는 집 안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지 못한 여성들이 유일하게 확보한 자아의 공간이며 은신처이다.



러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 온 여자에게 자신의 집을 흡연공간으로 제공하며, 화자는 세상을 속이는 공모자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는 옆집 여자의 남편이나 자신을 집안의 ‘가구’처럼 취급하는 화자의 무심한 남편이나 다름 바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옆집 여자가 죽은 후 그녀의 흡연 습관뿐 아니라 그녀가 누리던 편안함과 위안의 시간을 공유하게 된다. 이럴 때 담배는 연기처럼 무게를 지니지 못한 채 소모되고 소멸되는 여성의 삶을 은유하는 동시에 여성 간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저는 이제야 그 여인이 왜 그토록 담배를 버리지 못했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때론, 담배 한 대로 위안이 되는 일도 있지요.” 그렇게 말한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짐작할 것 같습니다. 담배 한 대로 위안이 되는 서글픔, 중압감, 배고픔, 추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새벽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울 때면 일상의 발길에 걸리는 자살한 돌맹이들이 모두 담배 연기와 함께 휘발되는 것을 느낀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나 저의 불면 같은 것까지도요 (….) “무엇보다, 난 담배를 피울 때만 살아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때만 온전하게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살아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죠.”<sup>21)</sup>

그러나 무엇보다 이 소설에서 여성끼리 맺은 동맹관계가 의미있는 이유는 화자의 연대감이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자책과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해의 주체로 성찰한 결과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즉 이 소설의 윤리적 시선은 남성 권력 속에서 사회화된 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여성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공모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계기를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물론 이들 소설에서 술/담배가 여성 인물을 다른 삶으로 이동시키는 행동의 결단이나 변화를 매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 인물들은 술

21) 김형경, 『담배 피우는 여자』, 『푸른 나무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1995, 32, 50쪽.

마시고 담배 피우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끼고(은희경 『빈 처』), 마신 술을 게워내는 것으로 술에 미혹되지 않는 생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거나(이혜경 『그 집 앞』), 이를 삶을 견디는 소극적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김형경 『담배 피우는 여자』). 따라서 키친 드링커의 몰래 마시기와 강박적인 흡연이 은유하는 것은 정숙 윤리에 긴박된 중산층 여성들이 계속해서 분열된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여성, ‘신성한 가정’의 환부를 드러내는 이들의 존재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결핍이자 과잉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들은 남성에게 충분히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 2.2. 탈성화(脫性化)된 주체의 생존 윤리

공선옥 소설의 여성들은 중산층 가정/모성 이데올로기에 순치되지 않는 부류로, 술/담배를 매개로 스스로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부장적 범주 밖에서 자기 윤리를 구성한다. 공선옥 소설 대부분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하층민 주변부 여성을 화자로 내세운다. 이 여성들은 대다수가 남편이 부재한 가정을 홀로 이끌어가야 하는 가난한 억척 ‘어미’들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기 가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담배 생각이 간절한 이기적인 어미이고(『목숨』), 배굶는 어린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술 마시러 나가는 모진 엄마이며(『우리 생애의 꽃』, 『어린 부처』), 상습적으로 술 마시고 취해 들어오는 부도덕한 엄마이기도 하다(『홀로어멈』).

이 ‘홀로어멈’들은 ‘먹고 사는 일’과 ‘목숨 붙이고 사는 일’의 고단함을 토로하며 술 한잔과 담배 한 개비의 위로에 기대어 녹녹하고 지리멸렬한

22) 키친 드링커는 술을 집에서 홀로, 지속적으로 마신다는 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음주하는 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함께 마시더라도 배우자, 친지, 동거인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의 술 마시기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인태정 『매일 끓는 술』, 『술의 사회학』, 한울, 1999, 228-229쪽.

삶을 이어가곤 한다. 그래서 공선옥 소설의 술과 담배는 무엇보다 이 여성들의 신산한 삶의 상흔을 부각시키는 도구이다.

이렇게 춥고 눅눅할 때는 술이라도 한잔 마시면 그래도 좀 나올까 싶다. 전기 안들어와서이건 어쨌건 작동도 안되는 게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 볼 썩사납다. 말 안 듣는 히터를 들어내는 일 또한 사람을 빠리란 걸 꼬집어낼 때 알아봤으므로 그게 겁나서라도 술을 한잔 하고 볼 일이다. 술이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면 제 정신이 아니라서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하게 된다.<sup>23)</sup>

그러므로 이 여성들은 처음부터 가부장의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된 야성(野性)의 엄마들이고, 이들에게 가정은 가부장적 질서의 구현체라기보다 술을 ‘보약’ 삼아서라도 버티면서 지켜야 하는 생존의 기반에 가깝다.<sup>24)</sup> 공선옥 소설의 여성들은 자식에 대한 보살핌의 의무와 책임을 여성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는 계기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견뎌야 하는 숙명과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의 자아를 엄마의 정체성에 밀착시켜 자신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지도, 자신의 몸을 자식을 보호하고 기르는 데만 유용한 ‘신성한 몸’으로 환원시키지도 않는 것이다.<sup>25)</sup>

공선옥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부장제의 윤리규정에서 이탈한 혹은 배제된 존재임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음주와 흡연을 상습적으로, 그리고 공

23) 공선옥 『홀로어멈』, 『멋진 한세상』, 창작과 비평, 2002, 115쪽.

24) 소영현, 『나르시시즘적 모성의 양면성:공선옥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388쪽. 소영현은 이에 대한 근거로 공선옥 소설에서 남성들의 역할을 주목한다. 여기서 남성은 가부장제의 모순을 체현하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으며 여성들의 현재적 삶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단지 여성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장식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25) 모성(motherhood)은 ‘양처(良妻)’ 이념과 더불어 근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창안물이지만, 1950년대 이후 모성은 양처에 귀속된 임무가 아니라 ‘주부’로 호명되는 여성의 기본 자질이 되었다. 즉 1950년대 주부담론은 여성≠주부≠어머니(모성)를 공식화하면서 여성이 자기를 사적 영역의 책임있는 주체로 구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김현주, 앞의 글, 66-70쪽.

개적으로 행한다.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 그들은 ‘반란’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생존의 절박함이 있음을 역설한다. 즉 가부장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오로지 생존의 이유만이 존재하는 여성들에게 술과 담배는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는 반란의 완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하루치의 반란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해 만족했다. 얼마간의 취기는 아이의 절망 앞에서 내가 지레 절망하는 사태를 조금은 방지해줄 수 있을 것이었다. 절망하지 않는 뻔뻔한 어미 앞에서, 바로 그 어미의 절망하지 않음 때문에 참혹하게 또다시 절망하는 어린 딸을 나는 이윽고 볼 수 있으리라. 그 앞에서 나는 허둥댈까. 아니면 냉담할까. 이유없음의 상황에서 이유있음의 상황으로의 탈출하기. 그것이 술마시기인가.<sup>26)</sup>

그러므로 술/담배에 대한 공선옥 인물의 상식과 윤리규정은 가부장제의 정속 윤리나 모성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살아냄’이라는 숭고한 원칙과 의무에 위배되는가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상습적인 음주와 흡연이 게으른 생의 변명이거나, 이유를 댈 수 없는 ‘허약한 반란’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일상의 무기일 수 있다는 데 대한 자기반성이 있을 때만이 음주와 흡연을 규제하는 윤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반란’이 비난받지 않을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될 때이다. 『우리 생애의 꽃』에서 자신의 일탈 욕구를 지리멸렬한 생의 ‘꽃’과 같은 것이라 변명해오던 화자가 생존과의 고투를 벌이는 술집 여성 수자씨 앞에서 자신의 변명을 무책임하고 상투적인 것이라 부끄러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술 마시러 가지는 그녀의 제의에 나는 순순히 동의한다. 술은 늘 이유 댈 수 없는 반란의 완성을 의미해왔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왔으니까.

26) 공선옥, 『우리 생애의 꽃』, 『피어라 수선화』, 창작과 비평, 1994, 172쪽.

술로서 얼마간의 취기로서 완성되어졌다고 믿는 내 허약한 반란의 실체. 이제 나는 이쯤 해서 내 이유 댈 수 없는 반란의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이유 댈 수 없음이라니, 그런 무책임성. 구역질 나는. 우리 생애의 꽃이라고? 이런 유치하고 상투적인!<sup>27)</sup>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엄마』에는 바로 이 상투적이지 않은 윤리의식을 통해 공선옥의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재편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아이들을 광주의 아동일시보호소에 맡겨두고 서울에서 돈벌이를 하던 ‘나’는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밤기차에 오르고, 여기서 수작을 걸어오는 옆 자리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된다. 나를 숙녀 대접해주던 그의 호의가 점점 반말투로 말을 건네고 몸을 더듬는 등 남성성을 과시하는 쪽으로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나는 보호자를 자처하는 그의 남자 노릇을 내치 못한 척 받아준다. 그의 행동은 “애기엄마 의식으로 푹푹 뭉쳐” 있던 내가 그 의무와 책임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있는 가정의 주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환상과 욕망은 남자가 의미하는 ‘주부’가 ‘애기 엄마’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산산조각이 난다. “여자가 담배를.” 하면서도 담뱃불을 붙여주던 남자는 그녀가 ‘애기엄마’임을 알고는 남성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애기엄마가 술 먹고 담배를 피워?”

나는 말하지 않는다. 애기엄마는 절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절대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건강한 새끼들 많이 낳고 평화롭게 살아봤으면. 그렇지만 나는 ‘우리 새끼’들의 엄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다.<sup>28)</sup>

그녀가 지녔던 ‘애기엄마 의식’은 ‘목숨줄’과 같은 것이었던 반면, 털복

27) 공선옥, 앞의 책, 177쪽.

28) 공선옥,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1998, 190쪽.

숭이 남자에게 ‘애기엄마’는 정숙한 가정주부를 의미했던 것이다. “무슨 애기엄마가 술 먹고 담배를 피워?”라는 털복숭이 남자의 대사는 여성의 음주와 흡연에 관한 남성들의 편견에 신성한 가정/모성 신화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

이 순간 여성 화자는 유년 시절 꿈꾸었던 ‘토끼’의 판타지<sup>29)</sup>가 영원한 결핍으로 남으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털복숭이가 청혼 했던 국밥집을 몰래 빠져나와 아이들이 있는 보호소로 향한다. ‘재수 없’다는 택시기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깊숙이, 양껏, 힘차게 빨아당”기는 마지막 장면은 그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엄마’로서의 자기 표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윤리의식을 가동하는 장면이다. 즉 모성도 여성성도 삭제된 탈성화된 주체로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엄마’에게 남은 것은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라도 견뎌야 하고 지켜야 하는 삶뿐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공선옥 소설에서 술과 담배는 ‘살아냄의 숭고함’<sup>30)</sup>이라는 유일한 윤리를 보존하기 위한 ‘생의 알리바이’가 된다. 공선옥 소설에서 담배와 술이 ‘위험한’ 기호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을 ‘신성한 모성’과 ‘정숙한 주부’의 정체성으로 환원하려던 가부장적 기획이 미처 은폐하지 못한 잉여의 영역과 타자의 존재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3. ‘동원된’ 여성들, 젠더표지의 은닉과 재건

공지영과 권여선의 소설은 술/담배에 대한 금기가 ‘여성’이라는 젠더표지를 어떻게 전유해왔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공지영과

29) 소설 내내 시간의 교차 편집을 통해 현재와 병치되고 있는 과거의 ‘토끼’ 이야기는 여성 화자의 욕망이 평화롭고 단란한 중산층 가정 판타지와 관련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유년의 판타지는 토끼를 쥐 그런 꿈을 갖게 했던 교장 선생님이 기차간의 중년남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깨지고 만다.

30) 소영현, 앞의 글, 405쪽.

권여선 소설의 기원이 386세대의 자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할 때, 술/담배는 여성 386세대의 도전과 좌절, 성장의 서사를 증언하는 클리셰(cliches)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음주와 흡연은 남성권력에 공모하고 금기에 도전하고자 했던 여성의 정치적(political) 무의식을 반영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sup>31)</sup>

공지영 소설의 여성 인물은 대부분 운동권 여학생들과 중산층으로 편입된 지식인 여성들이다. 특히 공지영의 후일담에 등장하는 여대생들은 술 마시기와 담배 피우기를 ‘혼자’ ‘몰래’가 아니라 남성과 어울려 ‘공개적으로’ 한다.

- 형, 나 담배 한 대 피워도 되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억양이 없었다. 너무 건조해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것 같았다. 덕현은 그런 민수의 모습에 오히려 당혹감을 느끼며 허둥지둥 담배를 민수에게 건넸다. 왜냐고 민수는 묻지 않는다. 그도 왜냐고 묻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덕현은 왜냐고 민수가 물어주었으면 한다. 민수는 애초부터 그러기로 했던 것처럼 담배를 물고 그것을 빨아대었다. 마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배를 빨아들이고 또 빨고 또 빨아들이고 빨었다. 민수의 앞에 놓인 작은 재떨이에 콩초는 쌓이고 방안은 너구리굴처럼 흰 연기로 가득 찬다.<sup>32)</sup>

위 인용 부분은 80년대 대학 운동권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설 『더 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의 한 장면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 공지영의 초기소설에서 담배는 암울한 시대 한 가운데 있는 청춘들의 깊은

31) 1970년대부터 여성의 담배 피우기가 남녀 평등에 대한 상징적 행위로 인식되면서, 1980년대 운동권 여학생을 중심으로 담배 피우기가 유행했다. 이 현상은 역으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운동권이라는 선입관과 편견을 낳기도 했다. 이기봉 『여성의 담배피우기 도전사: 여성의 저항과 공간(또는 장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42쪽.

32) 공지영, 『더 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 풀빛, 1989, 238쪽.

고뇌를 전경화하는 관습적인 상징이다. ‘오빠’가 아닌 ‘형’이라는 호칭 뒤에 민수의 젠더성이 지워진 것처럼 함께 투쟁하던 동지의 죽음 앞에서 남녀가 함께 피는 담배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의 도구일 뿐이다. 작가는 남자 선후배와 어울려 담배를 피우고 일상적으로 과음을 하고, 심지어 술이 덜 깬 채 강의에 들어오기도 하는 민수의 모습에서 정숙치 못한 여대생이 아니라 청춘의 고뇌와 방황을 읽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여대생의 음주와 흡연 형태는 저항적 주체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받고자 했던 여성들의 인정투쟁의 상흔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남성 지식인이 주도한 변혁 운동에서 여성이라는 성은 열등한 육체와 허약한 정신을 의미하는 부재와 결핍의 기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33)</sup> 이렇게 여성에게 적대적이었던 혁명의 이념 앞에서 여대생들은 열등한 젠더 집단과 차별화되는 동등한 저항 주체로 자신을 전시하는 표식을 필요로 했다. 이때 술과 담배는 바로 이들에게 여성성 은폐와 은닉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sup>34)</sup>

그런데 이처럼 전시적인 기능의 음주와 흡연이 한편으로는 특별한 여성 집단의 아비투스(habitus)가 되기도 했다. 권여선은 흡연 여성이 남성의 판타지를 자극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포착한다.

피우실래요?

그녀는 눈짓으로 주위를 살핀 다음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남학생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를 살짝 빼냈다.

오, 피울 줄 아시나보네.

33)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여성문학연구』 23, 2010, 54쪽.

34) 남녀 성 역할과 음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성 고정관념이 음주문제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때 과음과 폭음은 남성에게 필요한 신체적 강함과 솔직함 등의 덕목과 관련 있고, 여성이 성 역할 태도에서 남성과 유사하고 자 하면 할수록, 음주 행동도 남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장승옥·정은아, 「음주행위의 성별차이와 성 역할 기대」, 『사회과학논총』, 27집2호, 2008, 98쪽.



남학생이 약간 흥분한 기색을 보이며 불을 붙여주었다. 남학생의 다소 높은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던 남학생은, 참신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울긋불긋 상기된 얼굴로 끝까지 담배를 피워낸 그녀에게서 일종의 색다른 느낌을 받았기에 술자리가 끝난 후 그녀에게 담배 한갑을 선물로 사주었다. 그녀의 지도교수가 아는 출판사의 편집장에게서 전화를 받고 언뜻 그녀를 떠올린 것도 예상치 못한 그녀의 흡연 때문이었다. 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이 통상 글을 좀 쓰지 않는가.<sup>35)</sup>

여기서 남학생은 담배 피우는 여학생이 주는 ‘색다른’ 느낌에 흥분하고, 급기야 그녀가 글을 잘 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선입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듯, 담배는 흡연 여성에게 젠더 일반과 구별되는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표식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술/담배는 저항 주체로서의 자기 확인이 필요했던 여성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모방과 동일시 욕망에 의해 도구화되고, 그 여성들은 다시 남성들의 선망과 거부, 포섭과 배제라는 이중적 시선에 의해 젠더 집단과 구별되는 정체성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젠더표지를 은닉함으로써 저항적 주체로서 자기를 확인했던 진보적 여성들은 혁명 이후 그들이 동일시했던 남성 집단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된다. 술/담배가 혁명이라는 공적 대의를 공유한 청춘들에게 공히 용인되는 도구였다면, 이제 그 보호장치를 빼앗긴 여성들에게 그것은 열등한 젠더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낙인과 같았다.

-멀치값이 뭐가 비싸요? 오늘 시장에 가니까 천원에 세 바구니나 주던데...

웨이터의 얼굴이 험악해지는 순간 시인이 탁자 밑으로 가만히 팔을 뻗어

35) 권여선, 『가을이 오면』, 『분홍리본의 시절』, 창작과비평, 2007, 11-12쪽.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올랐어요. 멀치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웨이터는 험악한 눈초리를 거두지는 않았지만 손님에게 최대한의 자제심을 발휘하니까 그리 알리는 듯 다시 말했다.

-안 비싸다니까요. 마른안주 한 접시에 팔천원이나 받으면서 그깟 거 줘 못 줄 이유가 뭐예요?

-이 아줌마가 술집에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가 술집에 와서 안주 비싸다는 소리 했어요. 비싸지도 않은 멀치 한줌 갖고 비싸다고 거짓말하는 당신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저씨?<sup>36)</sup>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성화자는 좌절한 세대의 ‘문인’ 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순식간에 웨이터에 의해 안주로 시비 거는 ‘아줌마’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성화자가 ‘아줌마’로 호명되는 순간 은폐되었던 여성성이 노출되고, 세상은 이 열등한 존재에게 적의를 드러낸다. 물론 정황상 술집 웨이터에 대한 여성화자의 전의와 도발은 “결사적인 싸움”을 걸 대상을 상실한 혁명 세대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폭발시킨 것에 다름 아니지만,<sup>37)</sup> 한편으로 여성화자에게 이 상황은 여성이라는 젠더성이 남성-문인 집단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인 표지이며 낙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했다.

술/담배는 이처럼 “혁명이 좌절된 뒤 비로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별에 눈 뜨”<sup>38)</sup>면서 자신의 성에 대해 세상이 어떤 적의와 편견을 드러내는 지 경험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36) 공지영, 『꿈』, 『인간에 대한 예의』, 창작과비평, 1994, 33쪽.

37) 후일담 소설은 과거를 회한과 그리움으로 낭만화시키는 한편 현재적 삶에 적응하지 못한 386세대의 콤플렉스를 드러낸다. 이럴 때 자학적인 폭음과 흡연은 바로 이들의 무능하고 허약한 내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38) 김은하, 앞의 글, 54쪽.

혼자서 가라』는 젠더성 은폐를 암묵적으로 강요받아온 여성들이 중산층에 진입하면서 겪은 충돌과 상처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공부도 잘하”고 “야심도 있”던 엘리트 여성 혜완과 경혜, 영선은 남편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결혼제도와 갈등을 겪다 끝내 이혼, 외도, 알콜중독, 자살에 이르는 등 가정 내에 안착하지 못한 채 밀려난다. 이 소설에서 술과 담배는 이들 여성의 좌절과 패배, 환멸과 자조를 표현하는 도구로 전경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가부장적 보수성을 드러내는 남편들도 음주와 흡연을 폭력의 동기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sup>39)</sup> 이념으로 무장한 ‘학습된’ 지성인으로서 공지영 소설의 남성들이 술/담배에 관한 한 드러내놓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공지영은 혁명이라는 대의 아래 은폐되었던 가부장 의식이 지식인 남성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간파해낸다.

“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오늘 낮 술자리에서 왜 빠져나왔냐면 말예요. 글쎄 오늘 처음으로 글 쓰는 어른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끼고 다니던 그 시집의 주인공들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뻐는지... 근데 술자리에 앉자마자 이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이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쁘면 글 못 쓰는 데 하고는 돌아가면서 나 보고 술을 따르라는 거예요. 미인이 따른 술은 맛있으나 어쩐다나...”<sup>40)</sup>

위 술자리 풍경에서 알 수 있듯, 남성들은 여성-문인에게 술 따르기를 주문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상투적인 성 역할 분담을 재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화자가 느낀 분노와 모욕감은 이것이 상대적으로 진보를 자처하

39)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여성 일반이 일상에서 겪는 억압과 차별을 괄호 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접근법은 공지영 여성소설에 ‘중산층 페미니즘’이나 ‘부드러운 페미니즘’과 같은 라테르가 붙여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40)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142쪽.

는 남성-문인들의 행태라는 점 때문에 가중된다. 여성-문인에게서 굳이 ‘예쁘다’는 자질을 기표화해서 여성이라는 젠더표지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여성-문인을 남성-문인 집단의 이질적인 타자로 표상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여선에게도 술/담배는 전사같던 여성들이 어떻게 현실과 일상에 패배한 채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도구이다. 특히 술과 담배는 미숙한 사랑의 기억과 해후라는 모티프와 결부되어 혁명 이후 역사가 삭제했던 여성들의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상징적 기제로 사용된다. (『12월 31일』, 『나쁜 음자리표』, 『처녀치마』 외)

“지금도 피우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턱짓으로 내 뒤편을 가리켰다. 뒤로 한 자리 건너에 양복 차림의 오십 대 남자 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봉변을 당했던 그날을 나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3학년 가을 무렵이었던가.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남자 셋이 그녀에게 담배를 끄라고 고함을 쳤다. 그녀가 꾀웃이 한 대를 다 피우고 새로 한 대를 붙여 물었을 때 소주병이 날아왔다. 다행히 병은 그녀의 어깨에 맞고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의자를 번쩍 들고 뿔뿔 뛰는 나보다도 술집 주인을 불러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청하는 그녀의 또박또박한 말투에 더 두려움을 느낀 중년들이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분하게도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냥 피워. 이만하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그런 걸로 눈치까지 보고 그래?”

“나이 먹을 수록 더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젊었을 때야 뭘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녀는 담배를 피워 물긴 했다.<sup>41)</sup>

41) 권여선, 『12월 31일』, 『처녀치마』, 이룸, 2004, 106쪽.

『12월 31일』에서처럼 흡연에 시비 거는 남성들과 당당하게 맞서던 ‘그녀’는 ‘눈치’ 봐야 할 것이 많은 중산층 유부녀가 되어 옛 연인을 찾아온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시와 소설을 읽지 않는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했음을 선언하며 과거와 선을 긋는다. 그러나 옛 연인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나눠 피우는 동안, 그녀는 중산층 유부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허물며 지난 시간 못다 나누었던 마음을 고백한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던 과거와 만용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거리만큼 연인들의 시간은 이질적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동안 그녀는 과거의 그녀와 동질적 존재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술/담배가 환기하는 시간의 이질성과 동질성은 한때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투사와 같았던 그녀가 역사의 주변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을 상실감과 패배감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상실한 대상이 무엇인지 몰라 충분히 과거를 애도하지도 못한 채 중산층에 편입되어 결혼생활의 권태와 환멸을 수용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 그녀가 옛 연인과 만나 피우는 담배는 못다한 사랑에 보내는 송가이며, 더 이상 보존할 수 없었던 기억을 복원함으로써 치루는 자기 청춘에 대한 애도의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42)</sup>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은 역사의 주변인으로 잊힌 채 살아온 지식인 여성들이 상실과 몰락에 대응해 자신의 젠더표지를 어떻게 회복하고 재건해 가는지를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소설에서 세 번 이혼해 세 명의 성이 다른 아이들과 사는 ‘엄마’는 “소주를 연거푸 두 잔이나 들이”키며 딸과 대화하고 딸과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고, 딸 앞에서 담배 피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엄마다. 심지어 딸의 수능시험 날 친구들과 낫술을 마시겠다고 계획하고, 그 계획이 남자친구와 ‘소주 딱 한 잔’으로

42) 권여선의 인물들이 드러내는 적의와 환멸, 히스테리컬한 자기파괴 양상을 김은하는 청춘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애도의 방법으로 해석한다. 김은하, 『상처의 글쓰기와 애도의 씨김곳: 김형경, 신경숙, 권여선을 중심으로』, 『자음과 모음』, 2009, 580-586쪽.

끝나게 된 아쉬움을 딸에게 직접 토로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나 딸은 그런 엄마를 부도덕하고 정숙하지 못한 존재로 폄하하기도, 엄마에게 모성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그저 “엄마다웠다”고 할 뿐이다.

“으음, 엄마는 오늘 낫술을 마시기로 했어. 지난해에 아들을 대학에 보낸 친구가 주최하는 낫술 모임에 갈 거야. 지난해에 그 애 아들이 시험을 보는 날, 그 애가 거북해할까 봐 문자만 한 통 보내고 전화를 하지 않았더니, 아마 다른 친구들도 그랬나 봐... 그날 너무 심심했다나? 수험생 엄마 주체에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심심해! 하고 말하기도 왠지 어색하고... 그랬대. 그래서 이번해에는 다들 모이기로 했어. 그리고 오랜만에 처녀 때처럼 낫술을 마시기로 했어.”

나는 엄마를 따라 웃었다. 역시 우리 엄마다웠다. 엄마가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도 가벼워졌다. 솔직히 엄마가 교문에 엿을 붙여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내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sup>43)</sup>

이 소설에서 엄마와 딸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자매애’를 형성하고, 술은 딸과 엄마의 유쾌한 연대를 표현하는 ‘협력적 소통’<sup>44)</sup>의 도구로 기여하고 있는 듯하다. 이 소설을 통해 제시되는 가족 형태가 대안적인 의미를 담보하는 것처럼 엄마의 음주와 흡연 행위 역시 ‘결손’ 혹은 ‘비정상적’인 것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 위녕이라는 성숙한 딸의 시선에 의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엄마는 결핍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탐색하고 자아를 추구해가는 존재로 개별적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이 소설이 혁명이라는 환상 이후 붕괴된 주체를 재건해가는 386세대 여성의 이야기이며<sup>45)</sup> 딸과 엄마 모두의 성장담이라 할 수 있다면, 술과

43)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 푸른 숲, 2009, 300쪽.

44) 이명원, 『‘환상’ 이후-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에 대하여』, 『문화/과학』, 54, 2008, 218쪽.

담배를 매개로 엄마의 성장통을 예민하게 감지해내는 딸의 성숙한 시선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이 “개인의 사회성과 표현의 자율적인 형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형성의 과정”<sup>46)</sup>이라 한다면, 음주와 흡연은 모성강박과 죄의식에 갇히지 않은 여성의 자율적인 표현 형식이며 회복과 재건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나가며

문학적 기호로서 술/담배는 남성가부장 권력이 여성을 포섭, 배제하면서 상상적으로 젠더 범주를 구성하고 위계 짓는 표상으로 기능해왔다. 이에 여성은 이 같은 표상에 저항하고 공모하면서 술/담배의 기호론적 의미를 전유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술/담배라는 기호는 금기와 충돌하고 금기를 내면화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윤리기제를 형성했는지를 드러내는 복합적인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여성소설에서 술과 담배는 일차적으로 가부장 체제에서 타자화된 채 ‘주부’의 정체성으로 살아온 중산층 여성의 권태와 피로, 박탈감과 위기의식, 그리고 젠더 정체성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므로 주부의 일상공간인 주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키친 드링커(kitchen drinker)’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신성한 가정’ 내부의 위기와 균열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들의 몰래 마시기와 강박적인 흡연이 은유하는 것은 가부장의 ‘정숙’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욕망을 은폐한 채 분열된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씁쓸한 현실일 뿐이다. 그리고 이처럼 정숙 윤리에 긴박된 ‘위험한’ 주부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결핍이자 과잉의 기호인 것이다.

반면 공선옥 소설에서 술/담배는 중산층 가정/모성 이데올로기에 순치

45) 이명원, 앞의 글, 228쪽.

46) 김은하, 앞의 글(2010), 43쪽.

되지 않는 여성 부류가 타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생존의 윤리를 구성하는 계기로 등장한다. 이들 여성은 음주와 흡연을 상습적으로, 공개적으로 행함으로써 가부장 체제의 규제에서 이탈한 야성(野性)의 존재임을 입증한다. 이때 이들의 음주와 흡연은 ‘살아남의 숭고함’이라는 생존윤리를 보존하기 위한 생의 알리바이가 된다. ‘신성한 모성’과 ‘정숙한 주부’로 환원되지 않는 이 탈성화(脫性化)된 여성 주체들은 가부장 기획의 실패와 균열을 증거하는 불온한 기표가 아닐 수 없다.

공지영과 권여선의 소설에서 술/담배는 혁명의 주체로서 열등한 젠더 표지를 은닉하고 남성성을 전유하고자 했던 지식인 여성의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하는 클리셰(cliches)로 기능한다. 남성에 대한 모방과 동일시 행위로서 지식인 여성의 음주/흡연은 젠더 일반과 구별짓는 아비투스로서 남성들의 환상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부장 의식을 내면화한 남성-지식인 집단은 궁극적으로 여성 지식인의 열등한 젠더 자질을 환기시킴으로써 적의와 편견을 드러낸다. 이럴 때 술/담배는 지식인 여성이 남성 권력에 대항해 대타적(對他的)으로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의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여성소설은 음주와 흡연을 개인의 자율적 형식으로 수용하는 여성의 존재를 통해 여성의 젠더표지가 복원되고 재건되는 성장의 역사를 기재한다. 비로소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남성과 결부되지 않는 중립적이고 자족적인 의미로 개인의 취향과 기호, 욕망을 반영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공선옥, 『피어라 수선화』, 창작과 비평, 1994.  
 \_\_\_\_\_,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1998.  
 \_\_\_\_\_, 『멋진 한세상』, 창작과 비평, 2002.  
 공지영,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풀빛, 1989.  
 \_\_\_\_\_, 『인간에 대한 예의』, 창작과비평, 1994.  
 \_\_\_\_\_,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_\_\_\_\_, 『행복한 나의 집』, 푸른 숲, 2009.  
 권여선, 『치녀치마』, 이룸, 2004.  
 \_\_\_\_\_, 『분홍리본의 시절』, 창작과비평, 2007.  
 \_\_\_\_\_, 『내 정원의 붉은 열매』, 문학동네, 2010.  
 김형경, 『담배피우는 여자』, 『푸른 나무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1995.  
 이해경, 『그집앞』, 『그 집 앞』, 민음사, 1998.  
 은희경, 『빈처』, 『타인에게 말걸기』, 문학동네, 1996.

## 단행본

- 박상우, 『술병에 별이 떨어진다』, 미학사, 1993.  
 박재환 외, 『술의 사회학』, 한울, 1999.  
 원윤희, 『술의 미학』, 신광, 2003.  
 오상순, 『방랑의 마음』, 문화공론사, 1977.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정현중, 『나는 별아저씨』, 문학과 지성사, 1994.  
 가스통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김병욱 역, 이학사, 2007.  
 볼프강 슈벨부쉬, 『기호품의 역사』, 이병련 · 한운석 역, 한마당, 2000.  
 필립 그랭베르, 『프로이트와 담배』, 김용기 역, 뿌리와 이파리, 2003.

## 논문

-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여성문학연구』, 23호, 2010, 43-78쪽.
- 김은하, 「상처의 글쓰기와 애도의 씻김굿」, 『자음과 모음』, 2009, 560-589쪽.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와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여원 연구』, 56-82쪽.
- 남인숙, 「여성흡연에 대한 성차별적 사회담론」, 『사회이론』, 23, 2003, 131-320쪽.
-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5, 가을, 20-40쪽.
- 백혜주, 「여성과 술담배」, 『신가정』 Vol.2No.5, 1955, 37쪽.
- 소래섭, 「1920~30년대의 문학과 담배」, 『한국현대문학연구』 32, 2010.12, 315-342쪽.
- 소영현, 「나르시시즘적 모성의 양면성:공선옥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385-410쪽.
- 이기봉, 「여성의 담배피우기 도전사:여성의 저항과 공간(또는 장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41-42쪽.
- 이명원, 「‘환상’ 이후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에 대하여」, 『문화/과학』 54, 2008, 215-228쪽.
- 장승욱 · 정은아, 「음주행위의 성별차이와 성역할 기대」, 『사회과학논총』 27집2호, 2008, 89-106쪽.

**Abstract**

## Semiotics about alcohol/cigarette in women's literature

Lim Jung Yeon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literary symbolism of alcohol and cigarette in women's literature and then study how it unveils the gendered ethics of men and women.

Alcohol / cigarette represents itself as the objective correlative unveiling the inner solitude of middle-class women who are considered as others in the patriarchal system. Drinking and smoking of "Kitchen drinkers" is the expression of sorrow and deprivation of women who live as housewives. Drinking and smoking expose the false consciousness, 'virtue' and violence of ideology in the middle class. Drinking and smoking in Gong, Sun Ok's novel is a tool for women in the low class who are even excluded from the middle class to identify their identity which has been desexualized, and protect themselves. Drinks and cigarette in Gong, Ji Young's novel and Gwon, Yeon Sun's novel has the symbolism of the politics defying the taboo for women. Their novels tell the history of women about how men's power embraced and excluded women and how women concealed their gender symbols and restored them.

Alcohol and cigarette in women's literature is the symbol that represents the history of women's resistance and collusion against patriarchal male power.

Key words : alcohol, cigarette, ideology of the virtue, Kitchen drinkers, desexualized woman, political unconsciousness, gender symbol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